

조각 거장 애니시 카푸어 "예술...단순할수록 더 깊죠"

September 9, 2016 | 이향희 기자



CULTURE

2016년 9월 9일 금요일

매일경제 A31

구름은 안개처럼 손으로 잡으려면 잡히지 않는다. 그냥 눈에 보일 뿐이다. 고정된 실체나 형태가 없다.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 애니시 카푸어(62)에게 구름은 매력적인 존재다. 텃없는 인생을 은유하고 있을뿐더러 물성과 비물성의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작업으로 유명한 카푸어의 개인전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2003년, 2008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전시이자 국내 전시로는 2012년 삼성미술관 리움 개인전 이후 4년 만이다.

전시명도 '군집하는 구름(Gathering Clouds)'이다. 가운데 움푹 들어간 오목한 형태의 원형 작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 '군집하는 구름'은 먹구름이 몰려 있는 형상을 모티브로 했다. 철학 같은 어둠을 상징하듯 갤러리에는 7점이 걸려 있다. 언뜻 보기에는 검은색 원형 작품인데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느껴진다. 자세히 보면 짙은 회색에서 검은색까지 미세하게 진폭이 다르다.

"내 작품에선 어두운 내부.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 중요한 테마예요. 나는 비정형(non-object)과 비물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가 말한 비정형과 비물성은 무슨 말인가. "예술은 물성(物性)과 비물성(非物性)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철학으로



인도 출신 세계적 조각 거장 애니시 카푸어

“예술...단순할수록 더 깊죠”

국제갤러리 '군집하는 구름'展
이미지 반사·왜곡 등 20여점 전시
“이야기보다 詩적인 본질 추구”

도자기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철학은 손에 잡히는 것이지만 철학으로 만든 도자기는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이에 대해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수는 “재료인 쇠나 돌, 나무가 아닌 다른 것처럼 조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물질이 아닌 것처럼 혹은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조각 하면 목직인 인체상과 동물상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카푸어와 같은 현대미술가들은 조각의 개념과 영역을 물질 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정신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울처럼 이미지를 반사시키고, 왜곡시키는 '트위스트' 신작 15점을 대거 선보인다. 장방형의 기둥을 비틀어 놓은 형상으로 작은 작품은 60cm 크기로 선반 위에 놓여 있다. 높이가 2.5m에 달하는 대형 '트위스트' 석 점은 K3 전시장에 놓여 있는데 이미지의 왜곡과 반사가 강렬해 엄청난 현기증을 유발한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작업했지만 힌두교의 나라 인도 출신이라는 배경이 작용해 그의 작업을 동양적인 비움과 명상의 미학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작가는 “내가 오늘 영성적인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는 사람은 없다. 영성은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문제다. 잠선과 명상에 흥미가 있고 수년째 하고 있지만 작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분명한 건 그가 이야기보다는 시적인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작품에 많은 시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때론 단순함이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에 미스터리인 것처럼 예술도 항상 신비로워야 하죠.”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카푸어는 1973년 영국으로 이주해 공부를 했으며 1990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했다. 이듬해 영국의 권위 있는 미술상 '터너 프라이즈'를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2015년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전원에서 개인전을 열어 큰 호평을 받았다. 전시는 10월 30일까지. (02) 735-8449 이향희 기자